

2018년 서울시 7급 한국사 정답해설(6월 23일 시행) - A책형

1. <보기>에서 설명하는 구석기 유적은?

이곳에서는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발굴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세계의 전기구석기 문화가 유럽·아프리카 아슐리안 전통과 동아시아 지역의 찌개 문화로 나뉜다는 고고학계의 학설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다.

- ① 공주 석장리 유적 ② 연천 전곡리 유적
- ③ 청원 두루봉 동굴 유적 ④ 단양 상시리 바위 그늘 유적

1. 정답 : ②

제시된 자료와 관련된 구석기 유적은 ‘주먹도끼’이다.

② 주먹도끼는 찌개와 함께 전기 구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석기이다. 주로 아프리카, 유럽, 서아시아, 인도 등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미국 고고학자 H. 모비우스는 구석기 시대를 이들 지역의 주먹도끼 문화권과 동남아시아·동북아시아 지역의 찌개 문화권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1978년 한반도 연천 전곡리에서 주먹도끼가 발견되면서 모비우스의 학설은 무너졌다. 전곡리 유적에서 출토된 이후, 동북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도 이러한 주먹도끼들이 발견되고 있다.

① 공주 석장리 유적은 남한에서 최초로 발굴된 구석기 유적이다. ③ 청원 두루봉 홍수굴에서는 완전한 사람뼈 화석인 ‘홍수 아이’가 발견되었다. ④ 단양 상시리 바위그늘 유적에서는 호모 에렉투스의 특징이 나타나는 호모 사피엔스의 머리뼈가 출토되었다.

2. <보기> 자료의 정책을 시행한 국왕이 발행한 화폐로 가장 옳은 것은?

주전도감에서 아뢰기를, “나라 사람들이 비로소 전폐(錢弊) 사용의 이로움을 알아 편리하게 되었으니 바라건대 종묘에 고하소서.”라고 하였다. 이 해에 또한 은병을 사용하여 화폐로 삼았는데, 그 제도는 은 1근으로 만들고, 형상은 우리나라 지형으로 하였으며, 속칭 활구라고 하였다.

- ① 건원중보 ② 상평통보
- ③ 조선통보 ④ 해동통보

2. 정답 : ④

제시된 사료와 관련된 국왕은 주전도감을 설치하여 화폐를 발행한 고려 숙종이다.

④ 숙종 때에는 의천의 건의로 주전도감을 설치하여 삼한통보·해동통보·동국통보 등을 주조하였다.

① 우리나라 최초의 철전인 건원중보는 고려 성종 때 주조되었다. ② 조선 인조 때 처음 주조된 상평통보는 숙종 대에 이르러 법화로 지정되었으며,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환이나 어음과 같은 신용 화폐도 사용되었다. ③ 조선통보는 조선 전기 세종 때

수조한 화폐이다.

3. <보기>의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가)를 역을 피하는 곳으로 삼거니와, 어쩌다 글을 아는 자가 있어도 도리어 (가)에 이름을 두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온갖 방법으로 교묘히 피하므로, 훈도·교수가 되는 자가 초동(樵童)·목수(牧豎)의 나머지를 몰아다가 그 부족한 수를 채워 살아갈 길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중종실록』 -

- ① 군현의 인구비례로 정원을 배정하였다.
- ② 천민도 입학이 허가되었다.
- ③ 국가의 사액을 받으면 면세의 특권이 주어졌다.
- ④ 성적이 우수한 자는 문과 복시에 바로 응시할 수 있었다.

3. 정답 : ①

(가)는 교수와 훈도가 파견되었으며, 면역의 수단으로 이용된 향교이다.

- ① 향교의 입학 정원은 고을의 위상과 크기에 따라 자이가 났는데, 부(府)·대도호부(大都護府)·목(牧)의 경우는 90명, 도호부는 70명, 군은 50명, 현은 30명의 학생을 수용하도록 하였다.
- ② 향교에는 평민의 자제부터 양빈의 자제까지의 입학이 허용되었으며, 천민의 입교는 금지되었다. ③ 서원에 대한 설명이다. 서원이 국가의 사액을 받으면 토지와 노비를 하사받았으며 면세의 특권이 주어졌다. ④ 성균관 유생 중 성적이 우수한 자는 문과 초시를 면제받고 바로 복시에 응시할 수 있었다.

4. <보기>는 한국 고대사회 문화의 일본 전파와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ㄱ. 백제의 아직기는 일본에 불교를 전파하였다.
ㄴ. 다카마쓰 무덤에서 발견된 벽화를 통해 가야문화가 일본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ㄷ. 신라인들은 배를 만드는 조선술과 제방을 만드는 축제술을 일본에 전해주었다.
ㄹ. 고구려의 승려 혜자는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었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4. 정답 : ④

ㄷ. 신라는 일본과 문화 교류는 적었지만, 배 만드는 기술과 제방 쌓는 기술을 전해 주어 한인의 연못이라는 이름까지 생기게 되었다. ㄹ. 고구려 영양왕 대의 승려 혜자는 일본 쇼

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었다.

ㄱ. 4세기경 근초고왕 시기 아직기가 일본의 태자에게 한자를 가르쳤고, 왕인은 천자문과 논어를 전하고 가르쳤다. ㄴ. 7세기 일본 왕실의 무덤인 다카마쓰 고분은 복식뿐만 아니라 벽화의 내용이나 화풍, 무덤의 구조 등이 고구려 수산리 고분의 벽화와 비슷해서 당시 두 나라의 교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5. <보기>의 내용이 추구되었던 제4공화국 시기의 정치 상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ㄱ. 10월 유신	ㄴ. 100억 불 수출	ㄷ. 1000불 소득
-----------	--------------	-------------

- ①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의 간접선거로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 ② 비상계엄하에서 제정되어 국민투표로 확정된 헌법이 시행되었다.
- ③ 정권에 반대하는 교수, 종교인 등이 긴급조치로 투옥 혹은 해직되었다.
- ④ 학생, 지식인, 언론, 종교단체, 야당 등의 반대 속에서 한일협정이 조인되었다.

5. 정답 : ④

1972년 유신체제가 선포되고 성립된 제4공화국의 박정희 정권은, “10월 유신, 100억 달러 수출, 1000달러 소득”이라는 관제구호를 외쳤다.

④ 한·일 협정(한·일 기본 조약) 체결은 1965년으로, 제3공화국 때의 사실이다.

① 유신 헌법이 적용된 제4공화국 시기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들이 간접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② 유신헌법의 찬성 여부를 묻기 위해 국회의 동의 없는 국민투표가 시행되었고, 그 결과 90%가 넘는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③ 유신헌법에 따라 초법적인 권한이 대통령에게 부여되었으며, 유신헌법을 비방하거나 저항하는 학생, 종교인, 지식인들을 긴급조치를 위반했다며 투옥하였다.

6. <보기>는 개항 이후 경제 상황이다. 시간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청 상인들이 내지 통상권을 획득하였다.
ㄴ. 일본인 재정 고문이 화폐 정리 사업을 추진하였다.
ㄷ. 대한천일은행이 고종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설립되었다.
ㄹ. 일본 상인들이 개항장 중심의 거류지 무역을 시작하였다.

- ① ㄱ-ㄴ-ㄷ-ㄹ
- ② ㄱ-ㄷ-ㄴ-ㄹ
- ③ ㄹ-ㄱ-ㄷ-ㄴ
- ④ ㄹ-ㄱ-ㄴ-ㄷ

6. 정답 : ③

ㄹ. 1876년 조·일 수호 조규 부록에 따라 일본 상인의 활동 범위가 개항장으로부터 10리 이내로 제한되었다. 따라서 일본 상인에게서 물건을 받아 중개 판매를 담당하였던 객주, 보부상 등이 막대한 이익을 누릴 수 있었다. ㄱ. 1882년 체결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통해 청국 상인들은 조선의 한성 및 양화진에서 상업 활동을 할 수 있었다. ㄷ. 대한천일은

행은 1899년 대한제국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민간 은행이다. ㄴ. 일제의 재정 고문 메가타가 민족 자본을 흡수할 목적에서 주도한 화폐 정리 사업은 1905년에 추진되었다.

7. <보기>의 사건을 시간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제13대 대통령 선거
ㄴ. 4·13 호헌 조치 발표
ㄷ.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ㄹ.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 본부의 결성

① ㄴ-ㄱ-ㄷ-ㄹ

② ㄴ-ㄷ-ㄱ-ㄹ

③ ㄷ-ㄴ-ㄹ-ㄱ

④ ㄷ-ㄹ-ㄴ-ㄱ

7. 정답 : ③

ㄷ. 1987년 1월 서울대 학생이던 박종철 군이 치안 본부의 남영동 대공 분실에서 고문을 받다 사망하는 고문 치사 사건이 발생하였다. ㄴ. 전두환 정권은 간선제를 고수하려는 4·13 호헌 조치를 발표하면서 민중의 민주화 열망을 억제하였다. ㄹ. 1987년 5월 27일 전두환 정권의 호헌 조치 철회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위해 야당 정치인, 시민단체, 학생, 종교계 인사들이 모여 민주 헌법 쟁취 국민 운동 본부를 조직하였다. ㄱ. 6월 민주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진 뒤 1987년 12월 제13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으며, 민정당 대표 노태우가 당선되었다.

8. 산미증식계획의 영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식민지 조선 내에서 부족해진 식량은 만주에서 조, 수수, 콩 등의 잡곡을 수입해서 메꾸었다.

② 대한제국 정부와 황실의 땅 등 모든 국유지는 물론 황무지나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땅들도 모두 조선총독부로 귀속시켰다.

③ 소작 농민들은 고율의 소작료 외에도 수리조합비를 비롯한 여러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④ 지주들은 일본으로의 쌀 수출을 통해 이익을 증대시켰다.

8. 정답 : ②

② 산미 증식 계획은 미국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으로, 토지 소유권 귀속과는 관련이 없다.

① 일제가 산미 증식 계획을 통해 증산된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의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면서 한국에서 쌀 부족 현상이 발생하였다. 일제는 만주에서 조, 콩, 수수 등의 잡곡을 들여와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③ 일제는 1920년대 산미 증식 계획을 추진하면서 종자 개량비, 수리 시설 개선 비용 등을 실제 경작을 담당하는 소작농에게 전가하였고, 이 과정에서 소작농의 부담이 커지면서 생활이 갈수록 악화되었다. ④ 산미 증식 계획이 진행되면

7. 5가작통법은 5가구마다 1통을 설치하고, 몇 개의 통을 하나의 리(里)로 편성한 다음, 리마다 이정(里正)과 유사(有司)를 두도록 하였다. 이렇게 편성한 통내 가호에 연대 책임을 부과하여 거주지 이탈, 절도 등을 방지하였고, 조세 수취 대상자들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기도 하였다. ㄴ. 조선은 수령이 지역 세력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령의 임기를 60개월로 설정하였고, 자기 출신지 지방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상피제를 적용하였다. 또한 각도에 파견된 관찰사는 지방관을 감독하였으며, 지방관에 대한 업무 성적을 평가하기도 하였다. ㄷ. 조선 시대 향리는 고려 시대와 다르게 수령의 행정 실무를 보좌하는 세습직 아전으로 격하되었다.

ㄹ. 향촌 자치를 위해 각 군현에 설치된 것은 유향소이다. 경재소는 중앙 관직에 오른 현직 관료에게 자기 출신 지역의 유향소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게 한 제도로, 수도에 설치되었으며 자기 출신지의 유향소와 정부 사이의 연락 기능을 맡게 하였다.

11. <보기>의 기사와 관련된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우리의 빈약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하노라. …… 나는 큰 원인이 있음을 간파하였으니, 즉 자작자급(自作自給) 치 아니함이라 하노라. 환언하면 조선 물산을 장려치 아니함이니 고로 오인(吾人)이 이에 대서특서(大書特書)하고 절규 고창하는 바는 자작자급하자 함이니 즉 조선 물산을 장려함이 또 환언하면 보호무역을 의미함이니 이것이 조선인의 가장 큰 문제라 하노라.

- ① 500여 명의 인사가 민립대학설립기성회를 만들고 모금 운동에 나섰다.
- ② “조선인이 만든 것을 입고, 먹고, 쓰자”라는 구호를 내세웠고 민족자본을 육성하려 하였다.
- ③ 대구에서 서상돈 등이 국민성금으로 국채를 갚자는 운동을 일으켰다.
- ④ 조선어학회가 참여하였으며, 전국 규모의 문맹퇴치운동을 전개하였다.

11. 정답 : ②

제시된 자료는 조선물산장려회의 취지문의 내용 중 일부이다.

② 1920년대 초에 조만식을 중심으로 하는 관서 지방의 사회, 종교, 교육계 인사 4~50여 명이 모여 평양 물산 장려회를 발기하였다. 이들은 국산품의 장려와 근검 절약이 민족 산업 육성의 지름길이라 하여, “일상 생활에 다소 불리한 점이 있더라도 모든 일용품을 국산으로 사용할 것”을 호소하며 민족적 항일 운동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운동은 조선 물산 장려회의 창립(1922. 6)과 함께 더욱 조직화되었다.

① 민립 대학 설립 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③ 1907년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 보상 운동에 대한 내용이다. ④ 1929년 조선일보사에서 전개한 문자보급 운동과, 1931년 동아일보사에서 주최한 ‘브나로드 운동’ 당시 한글 보급 운동이 전개되었고, 한글 연구를 진행하던 조선어 학회에서도 한글 보급을 위한 강연회와 한글 책자 보급 등 문맹 퇴치 운동을 전개했다.

12. <보기>의 (가), (나)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 구삼국사를 얻어 동명왕본기를 보니 그 신이한 사적이 세상에 전하는 것보다 더 하였다. 그러나 처음에는 믿지 못해 귀환(鬼幻)으로만 여겼는데, 세 번 반복하여 읽어서 점점 그 근원에 들어가니, 환(幻)이 아니고 성(聖)이며 귀(鬼)가 아니고 신(神)이었다. 이것을 기술하지 않으면 후인들이 장차 무엇을 볼 것인가.

(나) 부여씨가 망하고 고씨가 망하자 김씨가 그 남쪽을 영유하였고, 대씨가 그 북쪽을 영유하여 발해라 하였다. 이것이 남북국이라 부르는 것으로, 마땅히 남북국사가 있어야 했음에도 고려가 이를 편찬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이다. 무릇 대씨가 누구인가? 바로 고구려 사람이다. 그가 소유한 땅은 누구의 땅인가? 바로 고구려 땅이다.

- ① (가) - 고구려 계승 의식이 반영되었다.
- ② (가) - 연대순으로 기록하는 편년체로 서술되었다.
- ③ (나) - 발해사를 우리 역사로 인식하였다.
- ④ (나) -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12. 정답 : ②

제시된 자료 (가)는 이규보의 「동명왕편」, (나)는 유득공의 『발해고』이다.

② 「동명왕편」은 이규보가 26세이던 1193년(명종 23) 고구려 시조 주몽에 대해 오언고율(五言古律) 형식으로 쓴 서사시이다.

① 「동명왕편」은 『구삼국사』에서 소재를 취하여 『삼국사기』에서는 제외된 고구려의 신이한 건국 사적을 서술함으로써, 고려가 성스러운 고구려를 계승하였다는 자부심을 전하려는 의도에서 지술되었다. ③, ④ 유득공은 『발해고』에서 민족사 측면에서 신라와 발해를 병립시켜 남북국 시대를 처음으로 제안하였으며, 고대사 연구의 시야를 만주 지방까지 확대하였다(한반도 중심 사관 극복).

13. <보기>의 조치를 시행한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노산대군의 시호를 올리고 (중략) 묘호를 단종이라 하였다.
- 임금이 친히 명나라 신종 황제를 제사하였다.
- 충무공 이순신의 사우(祠宇)에 '현충'이라는 호를 내렸다.

- ① 왕권 강화를 위해 수시로 환국을 단행하였다.
- ② 수원에 새로운 성곽도시인 화성을 건설하였다.
- ③ 명의 요청을 수용하여 중국에 원병을 파견하였다.
- ④ 백성들의 군역 부담 완화를 위해 균역법을 시행했다.

13. 정답 : ①

제시된 자료의 조치를 시행한 국왕은 조선 숙종이다. 숙종은 1681년, 노산군으로 강등되었던 단종을 복위시켰으며, 1704년에는 임진왜란 때 원군을 보낸 명나라 신종의 은의를 기리기 위해 창덕궁 후원에 대보단을 건립하였다. 그리고 충청도 아산에 세워진 이순신 사당에 '현충'이란 호를 내려 백성들의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였다.

- ① 숙종 때에 이르러 정국을 주도하는 붕당과 견제하는 붕당이 서로 교체됨으로써 정국이 급격하게 전환하는 환국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특정 붕당이 정권을 독점하는 일당 전제화의 추세가 대두되었다. 처음에는 서인과 남인이 격렬하게 대립하였으며, 나중에는 서인에서 길라지 나온 노론과 소론이 치열하게 경쟁하였다.
- ② 수원 화성은 정조 때 수원에 만든 성으로써 정치적·군사적 기능을 부여함과 동시에 상공인을 유치하여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는 상징적 도시로 육성하고자 하였다. ③ 숙종 재위기 중국 왕조는 명이 아닌 청나라였다. ④ 백성들의 군역 부담 완화를 위해 군역법을 시행한 국왕은 영조이다.

14. <보기>의 정책이 실시된 왕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백성들이 2필의 응역(應役)에 괴로워하였기 때문에 …… 그 폐단을 줄이려 하였으나 오래도록 결말이 나지 않았다. 이에 1필을 감하고 어(漁)·염(鹽)·선(船)에 세를 거두어 그 감액을 보충하려 하였다. 아! 예부터 민역(民役)을 줄이는 방도는 경비를 절약하여 백성을 넉넉하게 해주는 것보다 나은 방도가 없는 것이다.

- ① 자의대비의 복제 문제를 둘러싸고 예송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 ② 국제 정세를 이용하여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 정책을 취하였다.
- ③ 호포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창경궁 홍화문에 나아가 백성들의 의견을 물었다.
- ④ 흉년을 당해 결식하거나 버려진 아이들을 구휼하기 위하여 『자휼전칙』을 반포하였다.

14. 정답 : ③

제시된 자료는 양인의 군포 부담을 2필에서 1필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군역법(1750)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이와 관련된 국왕은 '조선 영조'이다.

③ 군역법 논의는 영조 25년 충청감사 홍계희의 '양역변통'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이와 관련된 논의에서 영조는 즉위 전부터 호포제를 최상의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한 때 호포제는 가장 유력한 양역변통책으로 부상하였고, 이에 대해 영조는 창경궁 홍화문에서 오부(五部)의 사서(士庶)와 지방에서 올라온 금군 등 50여 명을 불러 모아놓고 호포와 결포 가운데 어느 것이 편한지 물었다(一次臨門). 거의 모두가 호포가 편하다고 대답하였고, 영조는 호포제를 단행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준비·시행 과정에서 호포제의 시행은 어렵다는 것으로 결론이 모아지면서 양역의 완전한 혁파를 전제로 한 개혁보다는 용이하고 절충적인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었다.

① 예송 논쟁은 효종과 효종 비 인선왕후의 죽음에 따른 인조의 계비인 장렬왕후의 복상(服喪) 기간을 둘러싼 서인과 남인의 2차에 걸친 논쟁을 말하며 모두 현종 재위 기간에 전개되었다. ② 광해군 재위기의 사실이다. 임진왜란 때 명의 도움을 받은 조선은 명의 원군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고, 새롭게 성장하는 후금과 적대 관계를 맺을 수도 없었다. 이에 광해군은 강홍립을 도원수로 삼아 1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명을 지원하게 하되, 적극적으로 나서지 말고 상황에 따라 대처하도록 명령하였다. ④ 정조는 탕평책으로 당쟁을 억제하고 산업 진흥, 흑형의 폐지, 문교 진흥에 힘쓰는 한편, 흙휼전칙과 자휼전칙을 정하여 결호 및 난민 구제 사업을 폈다.

15. <보기>의 정강을 내세운 개혁 운동의 결과로 가장 옳은 것은?

- 대원군을 돌아오게 하고 청에 대한 조공을 폐지한다.
-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 평등의 권리를 제정한다.
- 제정은 모두 호조에서 관할하게 한다.
- 대신들은 의정부에 모여서 법령을 의결한다.

- ①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되었다.
- ② 일본에 수신사와 조사시찰단을 파견하였다.
- ③ 이만손을 필두로 한 영남 유생들이 만인소를 올렸다.
- ④ 청·일 양국은 군대 파견시, 상호 통보기로 합의하였다.

15. 정답 : ④

제시된 자료는 갑신정변(1884) 당시 개화파가 발표한 ‘혁신정강 14개조’이다.

④ 갑신정변은 청의 군사적 개입으로 진압되면서 한반도에서 청의 내정 간섭이 더욱 강화되었다. 일본은 정세를 만회하기 위해 이토 히로부미를 전권대사로 청국에 파견하여 이홍장과 담판을 통해 텐진 조약(1885. 3)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에는 조선에서의 청·일 양국 군대의 철수, 장래 조선에 변란이나 중대 사건이 일어나서 청·일 어느 한쪽이 파병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미리 알릴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①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은 1882년 임오군란 이후 체결되었다. ② 수신사는 조·일 수호 조규 체결 직후 조선 정부가 1876년부터 1882년까지 일본에 파견한 외교 사절을 말한다. 한편 1881년 4월 일본의 정세를 파악하고 각종 근대 산업 시설을 시찰하기 위해 조사시찰단이 파견되었다. ③ 1880년 제2차 수신사 김홍집이 『조선책략』을 고종에게 헌상하자 고종은 대신들에게 『조선책략』을 검토하도록 하고 동시에 전국의 유생에게 배포하여 그들의 식견을 넓히려 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재야의 유생들이 이를 격렬하게 반대하며, 이후 격렬한 척사 상소 운동이 전개되었다. 1881년(고종 18년) 2월 이만손, 강진규, 이만윤이 중심이 된 영남 만인소는 척사 상소 운동의 시작이었다.

16. 1948년 남북 협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ㄱ.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와 2차 미·소 공동 위원회 사이에 추진되었다.
- ㄴ. 좌·우 정치세력의 합작을 위한 7원칙을 발표하였다.
- ㄷ. 김구, 김규식 등이 평양에서 열린 회의에 참여하였다.
- ㄹ. 회의 결과, 미·소 양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16. 정답 : ④

ㄷ. 1948년 2월 김구와 김규식은 김일성과 김두봉에게 편지를 보내 남북 정치 회담을 제의하였다. 이에 김일성과 김두봉은 남북 제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개최하자고 다시 제의해 왔다. 분단 정부 수립과 동족상잔의 전쟁 발발을 우려한 김구와 김규식은 이 제안을 수용함으로써, 남북 협상(1948. 4. 27~4. 30)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ㄹ. 이들은 분단의 고착화를 우려하여 단독 정부 수립(5·10 총선거)에 반대하면서, 미·소 양군의 동시 철수와 통일 정부 수립을 주장하였다.

ㄱ. 남북협상은 1948년 4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개되었으며,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1946. 3~5)와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1947. 5~10)는 남북협상 이전에 추진되었다.

ㄴ. 좌우합작 7원칙의 발표는 1946년 10월의 사실이다.

17. 고려시대 신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왕실과 혼인을 통해 외척이 되어 대대로 특권을 누리는 문벌가문이 나타났다.
- ② 상층 향리인 호장층은 지방세력 가운데 과거 합격률이 가장 높아 관료를 배출하는 모체가 되었다.
- ③ 서민이 손쉽게 출세하는 벼슬은 궁궐의 잡무를 맡은 서리층으로 이를 산관이라 했다.
- ④ 광산에서 일하는 광부를 철간, 어부를 생선간, 소금 굽는 염부를 염간, 목축하는 사람을 목자간, 뱃사공을 진척이라 불렀다.

17. 정답 : ③

③ 궁궐의 잡무를 맡은 것은 서리가 아닌 남반이다. 이러한 남반은 문반, 무반과 구별되어 하나의 반열을 이루고 있었으며, 직위도 대부분 산관(散官)만을 가지고 있었다.

① 고려시대 문벌 귀족은 왕실과 문벌 귀족 간, 문벌 귀족과 문벌 귀족 간의 중첩된 혼인 관계를 통해 권력과 신분을 유지하였으며, 여러 세대 동안 중앙 고위 관직자를 배출하면서 정치·경제·사회적 특권을 독점하였다. ② 고려시대 호장·부호장 등의 상층 향리는 지방의 지배층으로 통혼 관계나 과거 응시 자격에 있어서 문벌 귀족에 비해 차등이 없었다. 따라서 일부는 과거를 통해 중앙으로 진출해 중앙 지배층에 편입되기도 하였다. ④ 고려시대에는 일반 농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천한 일을 하던 사람들로써 어업에 종사하던 어간(魚干), 소금 생산을 담당하던 염간(鹽干), 목축을 담당하던 목자간(牧者干), 철·구리 등을 채굴하던 철간(鐵干), 봉수 업무를 담당하던 봉화간(烽火干) 등이 있었다. 이들을 일반적으로 '신량역천인'이라 부른다.

18. <보기>의 결정을 내린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 한국을 독립국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 둘째, 한국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미·소 공동 위원회를 설치하다. ○ 셋째,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의 4개국이 공동 관리하는 최고 5년 기한의 신탁통치를 시행한다. |
|--|

- ①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개최하였다.
- ② 미국, 영국, 소련 세 나라의 외무장관이 참석하였다.
- ③ 한국의 신탁통치에 대하여 처음 국제적으로 논의하였다.
- ④ 이 회의의 결정 소식은 국내 좌우익의 극심한 분열을 일으켰다.

18. 정답 : ③

제시된 자료와 관련된 회의는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이다.

③ 1945년 2월 8일 미국·영국·소련 대표들이 개최한 ‘알타회담’에서 일정 기간 미국·영국·소련·중국 4개국에 의한 신탁 통치를 실시한 후 한국의 독립을 보장한다고 합의하였다.

①, ②, ④ 1945년 12월 미국·영국·소련의 3국이 제2차 세계 대전 전후 문제 처리를 위하여 모스크바에서 개최한 외무 장관 회의. 이 회의에서 한국에 임시 민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미·소 공동 위원회를 설치하고, ‘한국은 정부 수립 능력이 없으므로 5년간 미·영·중·소 4개국이 신탁 통치한다.’라는 내용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신탁 통치를 둘러싸고 좌익 세력(반탁 → 찬탁)과 우익 세력(반탁) 간에 격렬한 대립이 벌어졌다.

19. <보기>의 이야기의 아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오래도록 후사를 이을 아들이 없어 이 절의 관음보살 앞에서 기도를 하였더니 태기가 있어 아들을 낳았다. 태어난 지 석 달이 안되어 백제의 견훤이 서울을 습격하니 성 안이 크게 어지러웠다. 은함은 아이를 안고 [이 절에] 와서 고하기를, “이웃나라 군사가 갑자기 쳐들어와서 사세가 급박한지라 어린 자식이 누가 되어 둘이 다 죽음을 면할 수 없사오니 진실로 대성(大聖)이 보내신 것이라면 큰 자비의 힘으로 보호하고 길러주시어 우리 부자로 하여금 다시 만나보게 해주소서.”라고 하고 눈물을 흘려 슬프게 울면서 세 번 고하고 [아이를] 강보에 싸서 관음보살의 사자좌 아래에 감추어 두고 뒤돌아보며 돌아갔다.

- 『삼국유사』 -

- ①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석불사를,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불국사를 창건하였다.
- ② 국가재정을 낭비하는 불교행사를 억제하고, 유교사상을 정치의 근본이념으로 삼아 통치체제를 정비하도록 건의하였다.
- ③ 동리산문의 승려이자 음양풍수설의 대가로서, 개성, 평양, 한양이 국가의 중심지가 될 것을 예언하여 고려왕들의 존숭을 받았다.
- ④ 신라 말 당나라에 유학하였고, 발해의 재상 오소도의 아들 광찬과 같은 해에 급제하였다.

19. 정답 : ②

제시된 사료는 927년 견훤이 신라의 경주를 공격하여 경애왕을 참살했을 때의 내용으로, 『삼국유사』 기록에 따르면 최승로의 아버지인 최은함이 변란이 일어나자 최승로를 삼소관음 중생사에 맡겼다고 전해진다.

② 최승로는 성종에게 올린 ‘시무 28조’를 통해 유교와 불교의 기능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유교는 국가를 다스리는 이념인 반면 불교는 수신의 근본이며 내생(來生)을 위한 것임을 말하였다. 또 이와 관련해 불교 승려에 대한 지나친 예우를 삼가고 연등회·팔관회 등의 행사를 철폐하는 한편, 유교 사상을 통해 왕도 정치를 실현할 것을 주장하였다.

① 신라 경덕왕 대인 751년 김대성은 자신을 낳아 준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세우고, 고단한 삶을 살았던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다. ③ 도선에 대한 내용이다. 동리산문의 혜철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도선은 음양풍수설의 태가로, 풍수가 크게 유행한 고려 시대에 널리 추앙을 받았다. 특히 태조는 훈요 10조에서 도선이 위치를 정한 곳 이외에는 사찰을 함부로 짓지 말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도선이 끼친 영향력을 알 수 있다. ④ 최언위에 대한 설명이다. 최언위는 발해 제왕 오소도의 아들 오광찬과 같은 해에 급제하였는데, 오광찬의 석차가 최언위 보다 아래였다. 당에 사신으로 가있던 오소도가 이 사실을 알고 당나라 조정에 오광찬의 석차를 최언위 보다 위로 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등제 서열 사건이 일어났다.

20. <보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조정의 사대부들이 겉모양으로는 서로 사이가 좋으나, 마음속으로는 시기하여 심지어 은밀하게 중상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이것은 사전이 함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년에 이르러 겉병이 더욱 심하여져서 간악하고 흉악한 무리들은 주(州)를 타넘고 군(郡)을 포괄하며 산과 내를 표지로 삼아 모두 가리켜 조업전(祖業田)이라고 하면서 서로 물리치며 서로 빼앗으니, 한 이랑의 주인이 5~6명을 넘고 1년에 조(租)를 거두는 것이 8~9차례에 이릅니다.

- 『고려사』 -

- ① 전국의 토지가 재분배 되었으며, 관료들은 경기도 땅에서 최고 150결, 최하 10결의 토지를 수조지로 받았다.
- ② 관료 등급을 18등급으로 나누어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으며, 시지는 14등까지만 주었다.
- ③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가 지급되었다.
- ④ 인품과 관품에 따라 최고 100결에서 최하 20결의 토지를 주었으며, 상층 향리에게도 주었다.

20. 정답 : ①

제시된 사료는 고려 말 사전의 폐단을 묘사한 것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391년 과전법이 제정되었다.

① 과전법에서 과전(科田)은 문무 관료에게 경제적 기반을 보장하기 위해 시(時)·산(散), 즉 현직자와 퇴직자 또는 대기 발령자를 막론하고 18과(科)로 나누어 최하 10결(結), 최고 150결의 전지(田地)를 나누어 주었다.

② 고려 문종 대 실시된 경정 전시과에 대한 내용이다. 경정 전시과는 이전보다 지급 액수를 줄여 시지는 14등까지만 지급하였다. ③ 과전법에서는 전·현직 관료 모두에게 수조지를 지급하였다. ④ 개정 전시과에서는 최고 100결에서 최저 20결의 전지를 지급하였고, 경정

전시과에서 외역전 규정이 완비되었다.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海東韓國史